

“인생 최고의 홈런” 슈퍼스타 김도영, KIA 준PO 길 열었다



“앞으로 살면서 이런 경기가 또 있을까 싶어요. 제 인생에서 가장 뜻깊은 홈런이었습니다.”

KIA타이거즈의 ‘슈퍼스타’ 김도영(23)이 정규시즌 마지막 경기에서 자신의 야구 인생에 남을 한 방을 터뜨렸다. 팀의 준플레이오프 직행을 확정할 결승 홈런으로 생애 첫 홈런왕과 장타율 1위까지 거머쥘었다.

개인 통산 100번째 홈런마저 가장 극적인 순간에 완성했다. 하지만 김도영은 기록의 기쁨보다 팀을 승리로 이끌었다는 사실에 더 큰 의미를 부여했다.

김도영은 지난 12일 광주·기아 챔피언스필드에서 열린 2026 신한 SOL KBO리그 LG트윈스와의 정규시즌 최종전에서 8회말 결승 투런포를 터뜨리며 KIA의 4-2 승리를 이끌었다.

이날 승리로 KIA는 79승 2무 63패 승률 0.556을 기록, 정규시즌 3위를 확정하고 준플레이오프 직행 티켓을 손에 넣었다.

승부는 2-2로 맞선 8회말 같았다. 선두타자 박재현이 기습 번트 안타로 출루하자 김도영이 타석에 들어섰다. 상대는 LG의 세 번째 투수 존 케네디. 김도영은 3구째 슬라이더를 받아쳐 가운데 담장을 넘

시즌 최종전 8회 결승 투런포…45홈런·장타율 0.647 ‘타격 2관왕’ 통산 100호포로 준PO 직행 견인…“3위 만족 못해, 목표는 우승”

기는 비거리 130m의 투런 아치를 그렸다.

시즌 45호이자 개인 통산 100호 홈런. KIA의 정규시즌 3위와 자신의 생애 첫 홈런왕을 동시에 확정 짓는 결정적인 한 방이었다.

경기 후 만난 김도영은 홈런의 공을 동료들에게 돌렸다.

그는 “8회초 (전) 상현이 형이 병살타로 위기를 막아주면서 좋은 분위기로 공격에 들어갈 수 있었다”며 “(박)재현이가 선두타자로 나와 분위기를 최대한 끌어올려 줬다. 제가 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어준 것 같다”고 돌아봤다.

운명의 타석에서도 김도영은 흔들리지 않았다. 팀의 가을야구 항방과 개인 타이틀이 걸린 순간이었지만 자신의 타격에만 집중했다.

김도영은 “무조건 직구가 들어오면 잡아내겠다는 생각이 강했다. 여러 공을 따라다니지 않고 내 공만 치려고 했다”며

“그 상황에서 냉정함을 유지했고 과감하게 스윙한 것이 좋은 결과로 이어졌다”고 설명했다.

타구가 배트에 맞는 순간부터 홈런을 확신한 것은 아니었다.

그는 “방망이 안쪽에 맞아서 잡힐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래도 타구에 힘이 실린 것 같아 기대했다”며 “정말 간절할 마음으로 지켜봤다. 담장을 넘어가는 순간에는 아무 생각도 들지 않을 정도로 짜릿했다”고 웃었다.

사실 김도영은 경기 전날까지만 해도 홈런왕에 대한 기대를 내려놓고 있었다.

44홈런으로 선두를 달리던 김도영은 샘 힐리어드(KT위즈)가 지난 11일 삼성라이온즈전에서 홈런 2개를 추가하면서 공동 선두를 허용했다. 정규시즌 최종전에서 홈런왕의 주인공이 가려지는 상황이었다.

그러나 정작 김도영의 생각은 달랐다.

그는 “힐리어드 선수가 홈런 2개를 치고

홈런왕은 멋이 없다고 생각했다. 제가 못칠 것 같아서 차라리 힐리어드 선수가 하나 더 쳤으면 좋겠다는 생각까지 했다”고 털어놨다.

이어 “오늘은 홈런에 대한 생각이 전혀 없었다. 오히려 그런 마음으로 경기에 임했기 때문에 좋은 결과가 나온 것 같다”고 전했다.

그럼에도 마음 한편에는 특별한 하루를 향한 작은 기대가 있었다.

김도영은 “어제 잠들기 전 산책하면서 생각해 봤다. 팀이 이기고 제가 시즌 45호이자 통산 100호 홈런을 치면 정말 역대급으로 최고의 날이 되겠다고 생각했다”며 “그런데 실제로 가장 중요한 순간에 홈런을 쳤다. 지금은 더할 나위 없이 행복하다”고 기쁨을 감추지 못했다.

김도영에게 이번 홈런은 올 시즌 수많은 결정적인 장면 가운데서도 단연 첫손에 꼽힌다.

그는 “말도 안 되게 중요한 경기였고 팬

분들 앞에서 쳤기 때문에 더욱 뜻깊다”며 “시즌 마지막 경기까지 순위가 결정되지 않고 반드시 이겨야만 3위가 확정되는 상황이었다. 이런 경기는 앞으로 인생을 살면서 나오기 힘들 것 같다”고 의미를 되새겼다.

김도영은 올 시즌 135경기에 출전해 153안타 45홈런 118타점 120득점 타율 0.308 장타율 0.647 출루율 0.413, OPS(출루율+장타율) 1.060을 기록했다.

홈런과 장타율 부문에서 나란히 1위에 오르며 타격 2관왕을 달성했다. 특히 45홈런은 타이거즈 구단 역사상 한 시즌 최다 홈런 기록이다. 1999년 트레이시 샌더스가 세운 40홈런을 27년 만에 뛰어넘었다.

2024년 정규시즌 MVP를 차지하며 KIA의 통합우승을 이끌었던 김도영은 지난해 잇따른 부상으로 30경기 출전에 그쳤다. 그러나 올해는 건강하게 시즌을 소화하며 리그를 대표하는 강타자로 다시 우뚝 섰다.

자연스럽게 생애 두 번째 정규시즌 MVP 수상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다.

정작 김도영은 개인상에 큰 의미를 두지 않았다.

그는 “MVP까지는 사실 생각하지 않고

있다. 지금은 눈앞에 있는 가을야구에 더 집중하고 싶다”며 “올해 제가 100% 만족할 만한 활약을 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MVP는 받아도 그만, 받지 않아도 그만”이라고 밝혔다.

이어 “완벽한 활약이라는 것을 수치로 계산하기는 어렵다. 스스로 더 만족할 수 있는 모습을 보여줬을 때가 최고의 활약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혔다.

이제 김도영의 시선은 개인 기록이 아닌 더 높은 무대로 향한다.

KIA는 오는 17일부터 준플레이오프에 돌입한다. 2024년 통합우승 이후 다시 가을야구 무대에 서는 김도영은 정규시즌 3위에 만족하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김도영은 “우리는 지금 순위에 절대 만족하지 않는다. 시즌 초반부터 바라본 목표는 오직 우승이었다”며 “최대한 높은 곳까지 올라갈 생각이다. 모든 선수가 자신이 할 수 있는 역할에 충실한다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믿는다”고 힘줘 말했다.

정규시즌 마지막 순간을 자신의 무대로 만든 김도영. 이제 그의 방망이는 KIA의 또 다른 가을 기적을 향하고 있다.

송하중 기자 hajong2@gwangnam.co.kr

광주·전남 장애인체육인 2800명, 장성서 화합 한마당

15~16일 제1회 통합특별시 장애인생활체육대회 개최
27개 시·구·군 14개 종목 참가…통합 후 첫 공동 축제

광주·전남 장애인체육인 2800명이 행정통합 이후 처음으로 한자리에 모여 스포츠를 통한 화합과 소통의 장을 펼친다.

광주·전남장애인체육회는 오는 15일부터 16일까지 이틀간 장성군 일원에서 ‘제1회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애인생활체육대회’를 공동 개최한다.

이번 대회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 이후 양 지역 장애인체육인들이 함께 하는 첫 생활체육 축제로, 지역 간 교류를 확대하고 통합의 의미를 되새기기 위해 마련됐다.

대회에는 광주 5개 자치구와 전남 22개 시·군 등 총 27개 시·구·군에서 선수단 2248명과 관계자 552명 등 2800명이 참가한다.

특히 기존 전남지역을 중심으로 열렸

던 장애인생활체육대회를 광주까지 확대하면서 통합특별시 장애인체육의 새로운 출발을 알리는 무대가 될 전망이다. 경기는 정식종목 10개와 화합종목 4개 등 총 14개 종목에서 펼쳐진다.

정식종목은 보치아, 론볼, 게이트볼, 배구, 배드민턴, 탁구, 축구, 육상, 바둑, 파크골프이며 화합종목은 다트, 실내조깅, 술런, 한궁이다.

특히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경기에 참여하는 어울림 방식으로 운영해 장애 유무와 관계없이 누구나 스포츠를 즐기고 교류할 수 있도록 했다.

개회식은 15일 오전 11시 장성 옐로우시티스타디움에서 주요 내빈과 선수단 등 1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다. 식전행사에서는 가수 더 크로스의 김혁건이 축하공연을 선보이며, 이어



지난해 열린 '2025 전남장애인생활체육대회' 모습.

사진제공=전남도장애인체육회

선수단 임장과 개회선언, 대회기 게양, 대회사, 선수·심판 대표 선서 등이 진행 된다.

양 체육회는 원활한 대회 운영을 위해 지난 6월 통합 테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경기단체 의견수렴과 대표자회의, 실무협의 등을 통해 경기 운영 및 선수단 지원체계를 마련했다.

이번 공동 개최를 계기로 양 지역 장애인체육인들의 교류를 활성화하고, 생활체육 참여 기반을 넓혀 지역 간 균형

발전을 도모한다는 구상이다.

양 체육회 관계자는 “이번 대회는 광주와 전남 장애인체육인들이 하나 되어 통합의 새로운 출발을 알리는 뜻깊은 자리”라며 “지역과 장애의 경계를 넘어 모두가 함께 즐기고 소통하는 축제가 되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대회는 16일 오후 1시 30분 장성 옐로우시티스타디움에서 열리는 폐회식을 끝으로 막을 내린다.

송하중 기자 hajong2@gwangnam.co.kr

광주 체육 꿈나무들, 빙판 위에서 특별한 도전

시체육회, 청소년 육상대회 연계 빙상체험교실 운영

광주지역 체육 꿈나무들이 트랙을 벗어나 빙판 위에서 색다른 스포츠의 즐거움을 만끽했다.

광주시체육회는 지난 8일 ‘제9회 광주시체육회장배 청소년 육상대회’ 참가 학생들을 대상으로 염주빙상장에서 무료 빙상체험교실을 운영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프로그램은 청소년 선수들에게 다양한 종목을 경험할 기회를 제공하고, 스포츠에 대한 흥미와 적성을 넓혀주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광주도시공사가 염주빙상장 휴관일에 시설을 무상 지원하면서 체험교실이 운영될 수 있었다.

이날 체험에는 산정초 등 초등학교 7개교와 동명중 등 중학교 2개교에서 학생 50여명이 참여했다.

육상대회 예선에서 탈락했거나 경기 일정에 여유가 있는 학생 가운데 희망자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참가 학생들은 광주도시공사 천윤성과 광주시체육회 김영아 지도자의 지도 아래 빙상장 이용 방법과 안전수칙을 익힌 뒤

기본적인 스케이팅 자세와 주행 방법 등을 배웠다.

처음에는 낯선 빙판 위에서 균형을 잡는 데 어려움을 겪었지만, 감성이 이어지면서 점차 자신감을 얻고 스케이팅에 적응하는 모습을 보였다.

학생들은 서로를 응원하며 빙판을 누볐고, 육상 경기와는 또 다른 스포츠의 매력을 경험했다.

체험 종료 후에는 학생과 학부모들에게 기념사진을 무료로 제공해 특별한 추억을 선물했다. 학부모들도 다양한 종목을 접할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된 데 만족감을 나타내며 프로그램의 지속적인 운영을 희망했다.

전갑수 광주시체육회장은 “청소년 선수들이 한 종목에만 머무르지 않고 다양한 스포츠를 경험하면서 새로운 도전과 즐거움을 발견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폭넓은 체육활동 기회를 제공해 우수선수 발굴은 물론 청소년들의 건강한 성장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송하중 기자 hajong2@gwangnam.co.kr